

작업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의 관계

박성호*, 장문영**

*인제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작업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부산·경남의 135명의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이었다. 작업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척도와 한국어판 공감지수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과 : 자아존중감과 인지공감능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의 하위 항목인 사회기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급여에 따라 공감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교육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자아존중감이 높은 작업치료사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치료적 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임상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생에게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클라이언트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작업치료사

I. 서론

작업치료는 작업을 통한 건강 증진과 웰빙에 관련된 클라이언트 중심의 보건 직종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최 대한의 삶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가장 적합한 치료적 활동 및 작업을 선택하고 적용한다(강보선 등, 2011; WFOT, 2012). 작업치료사는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정동안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와 적절한 치료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이다.

Early (2009)는 치료사 자신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각과 의사소통을 조절하는 치료도구로써 치료사 자신을 치료적으로 사용하기(therapeutic use of self)를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치료사 자신의 내적 성장과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며,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치료사는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하고 클라이언트의 긴장이나 불안감 등을 감소시켜 안정감을 갖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강보선 등, 2011).

자아존중감은 치료사 자신의 내적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내적 성장은 개인의 존중과 생각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자신이나 환경에 대해 평가나 지각을 하는 것이

다(Rosenberg, 1965). Park(2002)은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자기평가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축적된 사회적 현상이자 경험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으며, 특별한 노력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 비교적 지속적인 성격특성이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를 비롯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되므로 수정 가능하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특별한 노력 없이는 변화시키기 어렵다(김태련과 장휘숙, 1994). 하지만 안순자(1997)는 집단경험을 통한 소속감 및 개인으로써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클라이언트와의 치료적 관계는 초기면담과 치료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감적 이해에서 비롯된다. 공감은 '타인을 알아가는 것'과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치료사의 공감 능력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신뢰와 호의가 증가하는 협력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Choi, 2010). 클라이언트 중심 상담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클라이언트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홍중관, 2002), 공감적 이해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들 중 하나이다(황광현, 2008). Peloquin(1998)은 공감을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Kim(2008)도 뇌졸중 클라이언트가 가장 선호하는 작업치료사의 태도, 행동, 특성을 공감성으로 제시하였다. Park(2002)은 '공감은 가르치고 훈련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인 자아존중감 역시 공감 능력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치료사의 공감적 이해가 치료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치료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적 도구로 사용되는 작업치료사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총 27개의 병·의원 또는 종합병원 등에서 작업치료를 시행 중인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1). 총 135명 중 성별은 남자가 38명(28.1%), 여자가 97명(71.9%)이었고, 연령은 25세 이하 73명(54.1%), 26세~30세 52명(38.5%), 31세 이상이 10명(7.4%)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125명(92.6%), 기혼이 10명(7.4%)이었고, 종교유무는 종교가 없다가 79명(58.5%), 있다가 56명(41.5%)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74명(54.8%), 4년제 졸업 이상이 61명(45.2%)이었고, 직위는 일반치료사가 119명(88.1%), 팀장급이 16명(11.9%)이었다. 근무지는 병·의원이 106명(78.5%), 종합·대학병원이 18명(13.3%), 기타가 11명(8.1%)이었고, 급여액은 149만원 이하가 33명(24.4%), 150만원~199만원이 87명(64.4%), 200만원 이상이 15명(11.1%)이었다. 대상자들의 임상경력은 3년 미만인 78명(57.8%), 3년~5년 미만이 34명(25.2%), 5년 이상이 23(17.0%)이었다.

2. 연구 절차

설문지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내에서 국내 설문, 통계자료 및 분석을 돕는 KSDC DB를 이용하여 인터넷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총 160명의 작업치료사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85명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넷 설문에 참가하지 않은 6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이 미비된 10부를 제외한 50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총 135명의 데이터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설문 시 연구 동의서를 읽고, 동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Average Self-esteem and Empathy Skills (N=135)

Variables	Characteristics	Subjects(%)
Sex	Male	38(28.1)
	Female	97(71.9)
Age	~ 25 years old	73(54.1)
	26 ~ 30 years old	52(38.5)
	31 years old ~	10 (7.4)
Marital status	Unmarried	125(92.6)
	Married	10 (7.4)
Religion status	Yes	56(41.5)
	No	79(58.5)
Education status	College	74(54.8)
	University	61(45.2)
Position	Therapist	119(88.1)
	Team leader	16(11.9)
Place of work	Hospital · Clinic	106(78.5)
	General hospital · University hospital	18(13.3)
	Others	11 (8.2)
Pay	~ 149 million won	33(24.4)
	150 ~ 199 million won	87(64.5)
	200 million won ~	15(11.1)
Career	~ 3 years	78(57.8)
	3 ~ 5 years	34(25.2)
	5 years ~	23(17.0)

3.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on(1974)이 번역하여, Gang(2011)이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 4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이다.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on(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2) 한국어판 공감지수(Korean Empathy Quotient; K-EQ) 척도

본 연구에서는 2004년 Baron-Cohen과 Wheelwright

가 개발한 공감지수(Empathy Quotient; EQ) 척도를 Heo와 Lee(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원어판은 총 60문항이었으나, 20개 문항은 필터링 문항으로 제외되고, 23개 문항은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문항으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7개 문항이 한국어판 공감지수 항목으로 채택되었다. 총 17개 문항은 3개의 하위 영역 5점 척도로, 인지공감 10문항, 정서공감 3문항, 사회기술 4문항이다. 점수범위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이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지수는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지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 분석을 사용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비교

작업치료사의 연령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공감능력 또한 총점과 하위항목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2.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비교

작업치료사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그러나 공감능력의 하위 항목인 사회기술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

3. 결혼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비교

작업치료사의 결혼유무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4. 종교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비교

작업치료사의 종교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5. 근무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비교

작업치료사의 근무지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6. 최종학력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비교

작업치료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

Table 2. Self-esteem and Empathy Skills by Age

(N=135)

Variables		~ 25 years old (<i>n</i> =73)			26~30 years old (<i>n</i> =52)			31 years old ~ (<i>n</i> =10)			<i>F</i>
		<i>M</i>	±	<i>SD</i>	<i>M</i>	±	<i>SD</i>	<i>M</i>	±	<i>SD</i>	
Self-esteem		30.11	±	4.31	31.21	±	4.13	33.00	±	3.65	2.594
Empathy	Total	53.53	±	6.17	54.02	±	5.56	55.00	±	3.68	.326
	Cognition	32.26	±	4.71	32.92	±	5.78	34.20	±	4.02	.745
	Emotion	11.00	±	2.06	11.33	±	1.94	11.70	±	1.49	.786
	Social	10.27	±	2.78	9.77	±	2.31	9.10	±	2.88	1.192

Table 3. Self-esteem and Empathy Skills by Sex

(N=135)

Variables		Male (<i>n</i> =38)			Female (<i>n</i> =97)			<i>t</i>
		<i>M</i>	±	<i>SD</i>	<i>M</i>	±	<i>SD</i>	
Self-esteem		32.63	±	3.97	30.01	±	4.14	11.160**
Empathy	Total	53.66	±	5.52	53.90	±	5.89	.046
	Cognition	33.21	±	5.27	32.44	±	5.04	.615
	Emotion	11.63	±	1.85	11.00	±	2.01	2.814
	Social	8.82	±	10.45	10.45	±	2.46	11.490**

**p<.01

Table 4. Self-esteem and Empathy Skills by Marital Status

(N=135)

Variables		Unmarried (n=125)			Married (n=10)			<i>t</i>
		<i>M</i>	$\pm$	<i>SD</i>	<i>M</i>	$\pm$	<i>SD</i>	
Self-esteem		30.61	$\pm$	4.26	32.50	$\pm$	3.80	1.844
Empathy	Total	53.58	$\pm$	5.64	57.00	$\pm$	6.70	3.314
	Cognition	32.46	$\pm$	4.83	35.20	$\pm$	7.58	2.711
	Emotion	11.11	$\pm$	2.61	12.00	$\pm$	1.56	1.873
	Social	10.01	$\pm$	2.61	9.80	$\pm$	2.82	.058

Table 5. Self-esteem and Empathy Skills by Religion Status

(N=135)

Variables		Yes (n=56)			No (n=79)			<i>t</i>
		<i>M</i>	$\pm$	<i>SD</i>	<i>M</i>	$\pm$	<i>SD</i>	
Self-esteem		30.80	$\pm$	4.30	30.71	$\pm$	4.24	.899
Empathy	Total	53.58	$\pm$	5.64	57.00	$\pm$	6.70	.160
	Cognition	32.46	$\pm$	4.83	35.20	$\pm$	7.58	.245
	Emotion	11.11	$\pm$	2.00	12.00	$\pm$	1.56	.158
	Social	10.01	$\pm$	2.61	9.80	$\pm$	2.82	.812

Table 6. Self-esteem and Empathy Skills by Place of Work

(N=135)

Variables		Hospital · Clinic (<i>n</i> =106)			General · University hospital (<i>n</i> =18)			Others (<i>n</i> =11)			<i>F</i>
		<i>M</i>	±	<i>SD</i>	<i>M</i>	±	<i>SD</i>	<i>M</i>	±	<i>SD</i>	
Self-esteem		30.70	±	4.46	30.78	±	3.35	31.18	±	3.68	.938
Empathy	Total	53.63	±	6.25	54.22	±	3.76	55.09	±	3.04	.696
	Cognition	32.42	±	5.27	32.89	±	4.82	34.55	±	3.50	.417
	Emotion	11.08	±	2.06	11.33	±	1.68	11.91	±	1.57	.391
	Social	10.13	±	2.74	10.00	±	1.91	8.64	±	2.20	.198

Table 7. Self-esteem and Empathy Skills by Education Status

(N=135)

Variables		College (n=74)			University (n=61)			<i>t</i>
		<i>M</i>	$\pm$	<i>SD</i>	<i>M</i>	$\pm$	<i>SD</i>	
Self-esteem		29.95	$\pm$	3.98	31.72	$\pm$	4.39	6.047*
Empathy	Total	52.57	$\pm$	5.53	55.36	$\pm$	5.72	8.252**
	Cognition	31.26	$\pm$	4.69	34.36	$\pm$	5.09	13.523**
	Emotion	11.04	$\pm$	1.84	11.34	$\pm$	2.13	.785
	Social	10.27	$\pm$	2.40	9.66	$\pm$	2.84	1.849

* $p < .05$, ** $p < .01$

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7). 공감능력 하위 항목에서는 인지공감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직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비교

작업치료사의 직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8).

8. 경력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비교

작업치료사의 경력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9).

9. 급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비교

작업치료사의 급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0). 하지만 공감능력은 유

Table 8. Self-esteem and Empathy Skills by Position (N=135)

Variables		Therapist (<i>n</i> =119)			Team leader (<i>n</i> =16)			<i>t</i>
		<i>M</i>	±	<i>SD</i>	<i>M</i>	±	<i>SD</i>	
Self-esteem		30.64	±	4.29	31.56	±	3.94	.664
Empathy	Total	53.66	±	5.88	55.13	±	4.81	.913
	Cognition	32.50	±	5.10	33.81	±	5.14	.926
	Emotion	11.06	±	1.98	12.06	±	1.73	3.694
	Social	10.09	±	2.65	9.25	±	2.32	1.461

Table 9. Self-esteem and Empathy Skills by Career (N=135)

Variables		~ 3 years (<i>n</i> =78)			3 ~ 5 years (<i>n</i> =34)			5 years ~ (<i>n</i> =23)			<i>F</i>
		<i>M</i>	±	<i>SD</i>	<i>M</i>	±	<i>SD</i>	<i>M</i>	±	<i>SD</i>	
Self-esteem		30.21	±	4.58	31.85	±	3.66	30.96	±	3.66	1.833
Empathy	Total	53.41	±	5.63	54.65	±	6.34	54.04	±	5.45	.559
	Cognition	32.13	±	4.64	33.59	±	5.45	33.09	±	5.99	1.067
	Emotion	11.28	±	1.87	10.94	±	2.33	11.17	±	1.82	.347
	Social	10.00	±	2.56	10.12	±	2.93	9.78	±	2.41	.111

Table 10. Self-esteem and Empathy Skills by Pay (N=135)

Variables		~149 million won (<i>n</i> =33)			150 ~ 199 million won (<i>n</i> =87)			200 million won ~ (<i>n</i> =15)			<i>F</i>
		<i>M</i>	±	<i>SD</i>	<i>M</i>	±	<i>SD</i>	<i>M</i>	±	<i>SD</i>	
Self-esteem		30.58	±	3.68	30.59	±	4.47	32.07	±	4.14	.809
Empathy	Total	51.39	±	6.04	54.55	±	5.63	55.00	±	4.64	4.109*
	Cognition	30.88	±	4.55	33.10	±	5.11	34.00	±	5.54	2.938
	Emotion	10.91	±	1.99	11.10	±	2.00	12.20	±	1.56	2.412
	Social	9.61	±	2.38	10.34	±	2.67	8.80	±	2.48	2.767

*p<.05

Table 11. Post-hoc Comparison by Pay

Variable	Pay (I)	Pay (J)	Mean difference (I-J)
Empathy	~149 million won	150 ~ 199 million won	-3.158*
		200 million won ~	-3.606
	150 ~ 199 million won	~149 million won	3.158*
		200 million won ~	-.448
	200 million won ~	~149 million won	3.606
		150 ~ 199 million won	.448

* $p < .05$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Empathy With Others

	Self-esteem	Cognition	Emotion	Social	Empathy
Self-esteem		.379**	.160	-.497**	.164
Cognition			.409**	-.360**	.861**
Emotion				-.207*	.611**
Social					.065

* $p < .05$, ** $p < .01$

의미한 차이를 보여, 급여에 따른 공감능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차이가 어느 그룹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급여가 150만원~199만원 그룹과 149만원 이하 그룹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10. 작업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작업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하지만 공감능력의 하위 항목인 인지공감은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기술은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과 전체 공감능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공감의 하위요소 중 인지공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사회기술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권지는 등(1997)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공감, 온정, 존중으로 구성된 촉진적 간호행위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두 변인간의 정적 상관관계($r=.531$, $p=.001$)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을 포함한 치료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요소와 자아존중감을 비교하였기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본 연구는 치료관계를 촉진하는 요소 중 공감이라는 부분만을 측정하였고, 사용한 공감 측정도구가 인지적, 정서적, 사회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공감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Park, 2012), 전체 점수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공감의 요소에 따른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감능력 항목 중 사회기술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Hong(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Gu(2012)의 연구에서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공감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감능력 항목 중 사회기술에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공감능력을 보인 점은 본 연구의 공감능력과 연령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Gang(2011)의 연구에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 결혼상태, 종교, 경력, 근무지, 직위, 직무만족도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상관관계에서 하위 영역 중 분석, 체계성, 비판적 사고, 자신감, 호기심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가치나 신념 뿐 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eddy와 Pepper(1998)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긍정적일 때 더욱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전문직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형태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데,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ndura, 2002). 국내의 연구에서 작업치료사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Kim, Roh, Won, Lee, & Jang, 2010),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Kim, 2006). 즉,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의 지각과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완화하는데 관련되며, 성격 유형 등의 다른 내적 변인들과 달리 성취 경험, 언어적 설득, 대리 경험 등을 통해 변화 가능한 내적 변인이다(Kim, 1997). 본 연구에서 최종학력과 자아존중감의 높은 상관관계로 유추할 때, 작업치료사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상 작업치료 현장에서 작업치료사의 자아존중감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기술 훈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작업치료사들의 중재 과정에 있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나 배

려심을 향상시키고,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작업치료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클라이언트의 세계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경험적 유대 또는 클라이언트와 함께함을 필요로 한다(Early, 2009). 또한 공감은 깊은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간호사의 조력행위 중 촉진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 하였다(권지은 등, 1997).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훈련을 시행한 연구에서 관찰평가 및 공감인지 평가의 사후 검정 결과 공감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Choi, 1988). 인간이 소속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공감을 통해 인간관계가 발전하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서로 간의 친밀함과 이해는 나아가 자기-존중, 자기-수용의 경험이 된다고 하였다(Park, 2002).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자아 경험과 성장하는 인간관계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가능한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클라이언트와의 상호관계에 기본이 되는 공감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다면, 작업치료사들의 중재 과정에 있어 클라이언트와 더욱더 긴밀한 치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업치료사들의 자신에 대한 가치와 신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배양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치료적 도구로 사용되는 작업치료사 자신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비교할 수 있는 국내 연구가 적어, 다양한 요인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지역의 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보다 다양한 변인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치료학생과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클라이언트의 치료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클라이언트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는 부산/경남에 소재한 27개의 병·의원 또는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 중 연구에 동의한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10개 문항의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와 17개 문항의 한국어판 공감지수(Korean Empathy Quotient; K-EQ) 척도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공감능력 항목 중 사회기술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과의 상관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지공감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 강보선, 방요순, 송창순, 오혜원, 이정숙, 장철, ... 최혜숙. (2011). 작업치료학 개론. 서울, 한국: 계축문화사.
- 권지은, 김지혜, 문수정, 서현아, 이미경, 지은주, ... 정은리. (1997). 정신간호사의 Self-esteem과 촉진적 간호행위와의 관계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30, 92-101.
- 김아영. (1997). 동기 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자기효능감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학회지*, 12(1), 105-128.
- 김태련, 장휘숙. (1994). 발달심리학. 서울, 한국: 박영사.
- 안순자. (1997).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원.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 홍종관. (2002).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에 관한 고찰.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37, 211-228.
- 황광현. (2008). 영적지도 관점에서 바라본 로저스 (Carl R. Rogers)의 공감(empathy)에 대한 이해. *복음과 문화*, 12, 127-160.
- Bandura, A. (2002).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In D. F. Marks (Ed.), *The health psychology reader* (pp. 94-106). London, England: Sage.
- Choi, M. S. (2010). Empathy as the essence of pastoral case and counseling: Focusing on Chris Schlauch's model of empathy.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14, 87-113.
- Choi, E. S. (1988). *Study on the effects of empathy training for increasing student nurse's empathy*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Early, M. B. (2009). *Mental health concepts & techniques for the occupational therapy assistant*.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Gang, M. H.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404-413.
- Gu, S. S. (2012). The influence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empathy ability on their conflict manage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4, 501-522.
- Heo, J. H., & Lee, C. J. (2007).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empathy quotient (EQ) scale. *Institute for Humanities & Sciences*, 24, 183-200.
- Hong, S. R. (2012). Effects of self-esteem and

- self-efficacy on altruism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14(4), 71–92.
- Kim J. J., Roh J. H., Won, J. U., Lee, S. Y., & Chang, S. J.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burnout among occupational therapis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2(3), 173–182.
- Kim, M. H. (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therapists that stroke patients prefer*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 Kim, S. P. (2006).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nurse practitioner's burnout in medical welfare center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Leddy, S., & Pepper, J. M. (1998). *Conceptual bases of professional nursing* (4th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Park, M. (2012).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9, 387–405.
- Park, H. W. (2002). *A study of effects of empathy training on the empathic ability and the self-esteem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Peloquin, S. M. (1998).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M. E. Neistadt, & E. B. Crepeau (Eds.), *Willard & Spackman's occupational therapy* (9th ed., pp. 105–119).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2). *Definition of Occupational Therapy*. Retrieved from <http://www.wfot.org/AboutUs/>
- AboutOccupationalTherapy/DefinitionofOccupationalTherapy.aspx

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Their Empathy With Others

Park, Sung-Ho^{*}, O.T., Chang, Moon-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The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lf-esteem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their empathy with others.

Methods : A survey was conducted on 135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Busan and Gyeongnam areas from December 2012 to February 2013. To measure the self-esteem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their empathy with others, the self-esteem scale and Korean-version of the empathy quotient (EQ) scale were employed.

Results : A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self-esteem and cognitive empath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skills, which is a subordinate item of self-esteem and empathy depending on gender, were shown, a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pathy depending on wage. In addition, self-esteem and empathy bot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s.

Conclusion : Occupational therapists with high self-esteem showed a high understanding of, and empathy toward, other people. Empath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between a client and therapis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a proper education program that improves the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 by clinical occupation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nd arouses the motivation of clients.

Key words : Empathy, Occupational therapist, Self-esteem